

# WONSEOK JANG

같이 일하면 동료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려 노력하는 개발자 장원석입니다.

## PROFILE

경계 짓고 업무에 한정하기보다는 서비스 전체를 보면서 내 산출물이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면 더 잘하고, 배우기도 가르쳐 주기도 좋아합니다. 책보다 대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언어에 한정되기보다는 기본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성이 시작지점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개발자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끔 천직을 고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꼭 토템 마냥 함께 일하기만 해도 동료에게 든든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 EXPERIENCE

주식회사 얼라인업 <https://alignup.io>

FRONT-END DEVELOPER / DEVELOPMENT TEAM 2020.07 ~ 재직중

HR-Tech 스타트업, 조직문화 관련 컨설팅과 HR 서비스 제공. OKR, CFR 서비스 프론트 엔드 개발 담당

### 서비스와 웹 사이트 개발

- Java jsp 로 운영중인 레거시 서비스의 오류 수정, 리눅스 호스팅 환경 이슈 트러블 슈팅.
- Wordpress 를 사용한 alignup.io 사이트 개발
- Nuxt.js(Vue.js) 를 사용한 alignup 서비스 Front-end 개발
- Github Action + AWS S3, Cloudfront 활용한 Front-end 배포 CI 환경 구축

### 주식회사 위메스

HEAD DEVELOPER / SYSTEM DEVELOPMENT DEPT 2017.11 ~ 2020.07

Edu-tech 기업, 출판사로 시작해 2017년 부터 학원 및 독서실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 시작.  
신규 개발팀 조직 및 신사업 기술 총괄 담당. ※ 메가스터디교육으로 M&A 흡수합병(2020년 7월).

### 개발팀 신규 조직과 운영

- 1인 개발팀으로 시작해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클라우드 엔지니어 채용과 팀 운영

### 온/오프라인 신사업 기술 총괄

- 파트너사, 외부 협력 업체, 프리랜서 미팅, 계약 담당
- Wordpress 등 CMS를 활용한 사이트와 커뮤니티 개발, PHP 를 사용한 온라인 시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H.264 + Video.js + Nginx 활용한 HLS/RTSP 스트리밍 환경 구축
- AWS S3, Lambda, Serverless 활용한 공무원 기출문제 다운로드 + PDF 병합 시스템 시스템 개발
- 키오스크 화면 개발과 VAN OCX 연동, 서비스 VAN/PG 연동 [Behance - Nangong Kiosk](#)
- Nuxt.js(Vue.js)를 사용한 자체 학원 운영 LMS 기획, 개발
- Raspberry pi 와 QR 바코드 리더를 활용한 출석체크 클라이언트 기획, 개발
- leaflet.js 활용한 좌석관리시스템 개발
- Cordova Framework 사용한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 출시 [Behance - My Nangong App'](#)

### 메가스터디교육 - 위메스 M&A 기술 관련 인계 담당

- 도메인 및 서버 이전, 결제 환불 시스템 구축, 이관

SKUINC(서경대학교 학교기업) <http://skuinc.net>

WEB DEVELOPER / WEB DEVELOPMENT TEAM 2016.08 ~ 2017.11

서경대학교 학교법인 산하 기업으로, 학내 디지털, 비-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에이전시.  
웹팀 소속 개발자로 학교 산하 70여개 사이트 유지보수 및 신규 사이트 개발 담당.

### 웹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 XpressEngine, Wordpress 를 사용한 사이트 개발, 유지보수, 플러그인 개발
- Slack - Gitlab - Jenkins - Docker 를 사용한 개발환경 통합 기획



장 원석 Wonseok Jang

- Phone +82 10-4443-8555
- E-mail [contact@jangwonseok.me](mailto:contact@jangwonseok.me)
- Blog <https://jangwonseok.me>
- Github <https://github.com/coffeequickly>

## EDUCATION

### 철학, 문학사

경희대학교(2008. 3 ~ 2016. 6)

\* 2010. 4 ~ 2012. 4 공군 전투비행단 복무

## QUALIFICATION & AWARDS

### Google Analytics Individual Qualification

- Google Skillshop

### i-AWARDS KOREA <전문교육 대상>

SeoKyeong University Arts Institute Website

- i-AWARDS KOREA 2017

### K-Design Award <Winner>

SeoKyeong University Arts Institute Website

- K-Design Award 2017

## UNDERSTAND & INTEREST

### Programming language, Protocols

- Undertand - Html, Javascript, PHP, SQL
- Interest - HTTP/SSH Protocols

### Frameworks, Libraries

- Undertand - Vue.js, Vuex, Nuxt.js, jQuery
- Interest - Node.js, WebAPI, Leaflet, Lottie

### Cloud Stacks, AutoML

- Undertand - AWS EC2/S3/CloudFront
- Interest - Google Cloud Platform AutoML, K8s

### Web Optimise, Analytics

- Undertand - Google Analytics, Tag Manager
- Interest - SSR, Rich Snippet, Lighthouse, E2E Test

# INTRODUCE MYSELF

## AS DEVELOPER

### 실전 압축으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넓지만 얇은 풀 스택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UI 개발자로 에이전시엔 입사해 워드프레스를 만나고 PHP와 MYSQL 을 알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 연동이 필요하게 되어서 플러그인을 만들게 되고, 게시물을 관리하면서 SQL CRUD를 배우게 됩니다. 자바 개발자 옆에 서 있다가 같이 불러가서 Nginx 를 사용한 로드 밸런싱 세팅법을 듣게 되는데, 그게 Centos 와 Nginx 와의 만남입니다. 우연히 Vmware 콘퍼런스에 쫓아갔다가 가상화의 맛에 혹해서 집 컴퓨터에 vShpere 설치한 게 가상화를 알게 된 시작이었고, PHP를 자바 개발자처럼 서버 의존 안 하고 개발하는 환경 구축 찾다가 Docker를 알게 된 게 컨테이너를 알게 된 시작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풀 스택은 웹과 상관없고 여러 도메인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붙는 라벨이라는 말이 생각합니다. “실전 압축 근육” 마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무언가 하다 보니 흔히 칭하는 풀 스택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대학교도 학부 때는 두루 넓게 맛보고 대학원부터가 진짜 학문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문제의식을 느끼고 집중해 파기 딱 좋은 5년 차 개발자 장원석입니다.

### 문제 의식을 가진, 사용자 입장에 있으려 노력하는 개발자

회사에선 작업 효율을 위해 포지션을 나누고 조금 더 관심 있거나 잘하는 분야를 맡겨야 개발자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상기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서비스의 부분들도 이해해야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급하게 제품을 만들면서 여러 라이브러리로 말린 뷰를 급하게 구성해 왔지만, 좀 더 기본에 충실해 나가면 나갈수록 언어를 정말 스펙이 아닌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만들고 높은 품질로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되새기고 있습니다.

CRM을 문의 전화와 게시판, 이메일로 2천여 건 직접 하면서 정말 서비스 소비자가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것들을 불편해야 하는지 느껴 보고 해결해 가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의 익숙한 시선과 개발자로서의 생각 보다는 사용자의 시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학원 데스크와 열람실에서 있어 보고, 공무원 시험도 치렀기에 고객 입장이 되어보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개밥 먹는 문화”를 선호하고, 개발자 입장보다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서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즐깁니다. 기획을 기술로 구현하는 것도, 기술에서도 기획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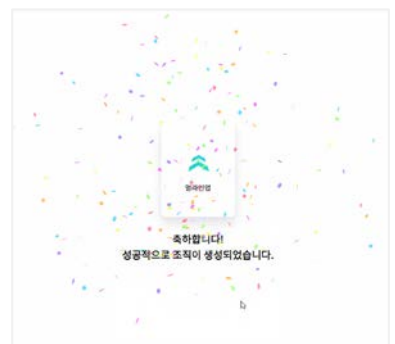
종이로 인쇄해 벽보에 붙여서 창피하다는 의견을 수집해 성적표와 출석 현황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전국 각 센터에서 OMR 스캐너로 처리된 성적 데이터는 온라인에 업로드만 되면, 학원 밖 수천여명의 전국 재원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좀 더 큰 데이터로 더 표준화된 성적 분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데스크에서 학생과 앉아 이야기하다가 지방의 학생들은 모의고사도 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오프라인 동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총 430,000건 응시, 매주 1주 7,500건 이상 응시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론트엔드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하지만, AWS Lambda 나 Managed RDS처럼 IaaS가 온전히 설정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 사용자와 만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매력이 더 커졌다 생각합니다.

###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것.

코드로 보면 별건 아니지만, 사용자의 감성에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 Splash가 돌아간다거나, Place Holder가 있으면 다음 이벤트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마이크로 인터랙션, 그리고 게임 업적과 같은 요소들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의 문제는 좋은 경험이지만 성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를 위한 복잡한 DOM 이벤트에서도 서비스에 부하가 없도록 효율적인 상태관리, 트리 웨이킹을 통한 성능 최적화, 그리고 스토리지와 쿠키, 브라우저 API를 잘 활용해 극복해 나가는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 INTRODUCE MYSELF

## AS CO-WORKER

### “자바 모르면서 자바 개발자 키워 본 팀장”

1인 개발자로 덩그러니 들어와 네 명을 더 총원해 팀을 조직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고 우여곡절과 배운 것도 많은 일이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자바 모르면서 자바 개발자를 채용해서 신입부터 리딩했던 일입니다. 분기마다 부단히 채용공고를 보며 시장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스택들을 찾고, 시니어로 가기 위해 집중할 아이템을 집어서 주는 어미 새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 백엔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레디스나 메세지 큐 같은 유틸리티들도 어떤 컨셉이고 어떨 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할 때 배워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개발자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생긴 계기입니다.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있다.”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할 동료가 있다.”는 게 조직을 만드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사용 언어는 다르지만,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해해 나가면서 배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15 개의 외부 기술 포럼 참가와 10여 개의 온/오프라인 직무 교육을 진행했으며, 사내 세미나 문화와 “프로젝트 리뷰”를 포지션에 관계 없이 진행했습니다.

### 배우는데는 위 아래도, 격식도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 두면 언젠가는 쓸 데가 생긴다.

앞자리에 마케터가 있었습니다. 자꾸 무슨 스크립트를 넣어달라고 부탁하길래 어깨 너머로 추적 도구란 걸 알게 되었고, 제게 SEO와 추적 도구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같이 웹 마스터 포럼도 가고 패널에게 질문도 하면서 리치 스니펫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게시물 검색량 50% 증가를 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추적 도구의 외부 검색 유입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벤트를 기획해서 이슈를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비 개발 직군이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울 것도 얻을 인사이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대화가 이것을 가능케 한다 믿습니다.

회계팀과 대화하면서 더존과 물류 ERP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LMS 기획의 시작), 학원 사업팀과 얘기하며 기존 학원 시스템의 불편함과 학생들의 바람에서 기술로 해결방법이 나왔으며, 미디어 제작팀에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오디오와 비디오 라우팅 기술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또 HLS 나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때는 (혹은 개인 방송을 하거나) 분명 쓸데가 있을 겁니다.

### CFR과 OKR에 관심이 있습니다. 슬랙에서는 수다쟁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 구성원이 정렬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 말은 부분만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개발자는 회사에서 정말 뭘 원하는지, 그리고 가야 할 길로 함께 가고 있는지 알기는 참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목표설정, 그리고 정렬하는 것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주정해진 요일마다 1시간씩 1: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 하는 일에 이야기하고 세미나나 라이드닝 토크를 즐겼습니다. 서로 업무 외적으로 방해하지 않기 위해 슬랙을 열심히 사용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공식적인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문화도 개발자 역량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수평적이 아닌, 개인이 맡은 바를 스스로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조직 문화,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개발을 더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 땐 자바랑 AWS 모르던 팀장



프론트 엔드 개발자, 디자이너, 백 엔드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2019년 11월 20일에 완료된

### Google 애널리틱스 Individual Qualification

수료 ID 41487891 | 만료일 2020년 11월 20일

나중에는 애드센스도 쓰는 날이 오겠지요?

Analytics			
Overview Channels Members			
Search members			
40 members			
Name	Account type	Days active	Messages posted
정원석 위메스 시스템개발부부장	Primary Workspace Owner	—	100,742
	Workspace Admin	—	97,311
	Workspace Admin	—	61,395

# INTRODUCE MYSELF

## TECHNOLOGY LOVER

### 사실 CMD 환경은 초등학교 때 부터 익숙했어요! 개발자가 될 조짐, autoexec.bat 의 인연 등

486DX 가 집에 있었습니다. 첫 컴퓨터는 Mdir 부터 시작했지요. 사실 개발자의 조짐은 그 때 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제일 재미있었던 건 8배속 CD-ROM 에 넣고 하던 Liero 라는 게임이 포켓몬스터 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사로잡았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은 엔터 말고 뭔가 키보드를 다른걸 눌렀는데, 뭐가 없다고 같은 말만 나왔습니다. 그 때 부터 컴퓨터가 “고장” 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시 초등학교생이 아는 건 없고 옆에 DOS 길라잡이 책이 있었는데, 따라 치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 동안 독수리 타법으로 따라 쳤고 지금서 아는게 **autoexec.bat** 파일이라는 것 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인지 터미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OS도 이것 저것 설치를 많이 했는데, 전설의 windows me 부터 주변에 써본 사람도 거의 없던 2000 까지 대부분의 윈도우를 다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2000을 쓸 때는 갑자기 alert 창으로 광고가 뜨곤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포맷까지 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서 알았지만, 그게 서버였던거죠.

사실 수능 등급제한 아녘으면 컴퓨터 교육학과라는 몇 안되는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철학과로 진학을 하고 다시 개발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만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 순수 문과 비전공자가 개발자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유, N 모사 손 코딩 사전 문제를 한글로 풀게 된 사건,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하게 된 이유

사실, 철학이 지금 까지 저에게 학문의 일부로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남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존재, 인식, 윤리” 라고 하는게 얼마나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안다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부터 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고 말한 테스형의 어구가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15장을 쉽게 쓰는 방법과 100 여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토론해 나가는 방법 입니다.

여타 문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러하듯,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프로 공무원 준비생이 된 저는 결국 시험장 까지 가게 되는데, 시험장 안의 분위기와 “영당이 싸움”으로 이겨 내야 하는 지엽적인 “국/영/사/한” 문제들, 그리고 끝나고 울먹이는 수험생을 보며 나에게 행복한 삶이 뭔지 고민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때만 해도 공무원 수험 관련 업계에서 일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지만요.

인생의 굴절이 될 큰 고민을 하던 와중에 학과장님이 장학금을 미끼로 건 학과 사이트 만들기 미션이 들어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Wordpress 를 다운 받고 스킨을 구매해서 css 를 수정합니다. 당시엔 시지어 캐스캐이딩의 지식도 없었는데, 오로지 크롬 개발자 도구와 찾기, 그리고 숏 코드에만 의지해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때 부터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수험서와 SAT, NCS, 그리고 해커스 토익과 함께 대기업들의 문을 두드릴 때,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두드리며 “개발 비슷한 회사”면 이력서를 수십개 썩 넣곤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전혀 몰랐지만, 뭐라도 아는 사람처럼 보여야 면접이라도 가서 말이라도 붙일 수 있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 해 html과 css로만 사이트를 짤까내 호스팅에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개 정도의 사이트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갔고, N 모사 인턴쉽 서류 합격을 덜컥 해버립니다.

난생 처음 판교를 가 보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열었는데 **“자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문제에 답하세요”**라는 안내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수학 인지 과학인지 모를 문제들은 너무 어려웠고 퍼블리싱 문제 몇 개를 겨우 풀게 됩니다. 너무 간절했기도 하고, 차비도 아까운 배고픈 시절이었기에 오기로 써 내려갔습니다. **“변수를 초기화 하고, n 만큼 더한 다음에 조건 x를 만족하면 그 시점의 n 값을 출력하는 함수”**

그렇게 길고 긴 손 코딩이 끝나고(당시를 회상하면 두어시간 동안 진행했던 것 같다.), 기념품 받아 돌아간 뒤 어쩌면 갈 수 없는 길은 아닌가 자책감도 들고 이력서 넣기도 지칠 때 즈음 합격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탈락하게 되는데, 큰 조언을 듣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장원석씨는, 퍼블리싱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 언어라도 쉽게 느껴지는거 하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리싱 할 줄 아니까 제이쿼리라도 잘 써보세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직업인 사람에게 처음으로 뭔가 잘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에이전시에 가카스로 취업하게 되면서 개발자를 직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에 가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는데, **“전공자도 경력자도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데 뭐라도 해 보려는게 보여서”** 였다. 그 때 부터 문제를 어떻게서라도 해결해 보려는 습관이 들었고, 폴 섹터이라는 거창한 라벨이 붙게 된 자연스런 이유기도 합니다.

가끔 그 때 그냥 상투적인 대답을 들었다면 어쩌면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인터뷰 후기에 대해 얘기하고 시간도 가집니다. 여러 일화가 있는데, 저도 인터뷰에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 INTRODUCE MYSELF

## TECHNOLOGY LOVER

### “실력이 안 좋은 목수” 라 연장을 탐냅니다.

키보드를 이것저것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청축 키보드와 무접점 키보드를 사용하고, 사무실에서는 저소음 갈축을 사용합니다. 마우스는 에이전시 다니던 시절 포토샵을 과하게 하는 바람에 터널 증후군을 얻게 되어서 로지텍 버티컬을 사용합니다. 키캡 같이를 좋아합니다.

### 컴퓨터 조립도 좋아하고 IOT 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조립한 데스크톱이 세 자리가 되는 듯 합니다. AMD 시스템을 좋아하고, ITX 시스템 하나 조립하기 위해 총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에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을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Yeelight 전구로 모든 방의 전구를 바꾸고 구글 홈 미니와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루틴을 설정했습니다. 아침에는 켜지고 밤에는 꺼지니 불 켜고 자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버전이 나올 때마다 사는데, 회사에서 뭐 하나 만든 뒤론 질려서 NAS로 눈을 옮기고 있습니다. NAS는 2009년 출시된 POGO PLUG이라는 제품을 처음 사용했고, 처음으로 아치 리눅스와 데비안과 같은 리눅스 환경에 터미널을 사용해 접속한 계기입니다.

### 쉬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개발이고 일도 개발이 되어버린 경우인지라, 그리고 여러 자격지심이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인지라 쉬는 방법을 모르고 5년 넘게 달려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게 주제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컨트롤을 하기 위해 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해외 드라마를 몰아 보는 것을 좋아하고(넷플릭스보다는 아마존 프라임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잘 못 하지만 게임 방승을 즐겨 봅니다.

고등학교 때는 검도를 1단까지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리듬 줄넘기를 했지만, 운동과 인연은 없었던 관계로 집에 접이식 사이클을 들였습니다. 옷걸이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 스스로를 소개하는 일은 언제 해도 참 어려운 일 인 것 같습니다.

처음 채용할 때는 호기롭게 이력서보다는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만 먼저 보고 반 블라인드로 좋은 사람을 걸러보자며 뛰어들었다가 수백 장 쌓여가는 자기소개를 보고 질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줄필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개발자들에 비해 학부에서 깔고 들어오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라면 욕심도 낼 줄 알아야 하고 부딪치고 깨지는 걸 겁내서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